

## 미국의 제국주의와 감상주의\*

고 강 일

(연세대학교 강사)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기획과 그에 대한 대항 담론이 19세기 미국의 감상주의 문학을 전유하는 양상을 추적한다. 해리엇 비처 스토우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필리핀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 소설이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스토우의 작품이 표상하는 가정성의 인종주의적인 함의를 규명한다. 그리고 카를로스 불로산의 『미국은 내 마음에』의 분석을 통해 20세기 초반 필리핀과 미국에서 제국주의적 가정성 담론이 관철되는 동시에 저항 받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이 자전적 소설에서 필리핀 식민 주체가 “자애로운 동화” 담론과 협상하는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불로산의 텍스트가 제국주의적 가정성에 내포된 인종적이고 계급적 편견을 극복하는 양상을 조명한다.

주제어 : 스토우, 『톰 아저씨의 오두막』, 미국 제국주의, 불로산, 『미국은 내 마음에』, 감상주의

## I. 서론

이 글에서는 19세기 미국의 감상주의 문학과 그것이 표상하는 가정성(domesticity)이 어떻게 미국의 인종주의적 제국주의 기획과 그에 대한 대항 담론(counter discourse)으로 전유되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해리엇 비처 스토우(Harriet Beecher Stowe)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11).

*Cabin*, 1852)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미국의 감상주의 문학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이 소설은 미국의 대내외적인 인종정치학과 관련해서도 풍성한 토론거리를 제공해주는 텍스트이다. 작품을 둘러싼 논쟁들, 특히 감정과 연루되는 젠더, 인종 등의 역학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의 미국 제국주의 담론의 일단을 규명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같은 담론들이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식민 정책에 활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감상주의와 미국의 인종주의적 팽창주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계 미국문학에서 정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카를로스 불로산(Carlos Bulosan)의 자전적 소설인 『미국은 내 마음에』(*America Is in the Heart: A Personal History*, 1946)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불로산의 작품이 미국의 감상주의적 제국주의 정치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전유하고 있는지에 집중한다. 작품에서 감정 혹은 가정성의 정치학은 인종적 타자를 억압하는 규율적 권력에서부터 대공황기 경제적 억압에 대한 침예한 비판적 인식까지 다양하게 변주된다. 유년기에 필리핀에서 미국의 식민주의 교육을 받고,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본토에 도착하여 극심한 인종주의적 착취를 경험했던 불로산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소설은 당대 미국의 인종적 타자들과 감상주의의 정치학이 교섭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결국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의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에서, 감상주의가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기제로서 전유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데 있다.

## II. 『툼 아저씨의 오두막』과 제국주의 기획

『툼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에바(Eva)의 죽음 장면만큼 19세기 감상주의 문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은 극히 드물다. 19세기 미국 문학을 통틀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 장면을 잠시 살펴보면,

“아, 톱시, 불쌍한 아이. 나는 널 사랑 한단다!” 에바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그 가늘고 흰 손을 톱시의 어깨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널

사랑해. 왜냐하면 넌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구도 없는 불쌍한 고아이고 학대받은 아이잖아. 그래서 널 사랑해. 난 네가 착한 아이가 되면 좋겠어... 널 위해서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흑인 소녀의 날카롭고 예리한 눈이 눈물로 흐려지더니, 마침내 굵고 맑은 눈물이 차례로 작고 하얀 손 위로 무수히 떨어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에 진실한 믿음과 신성한 사랑의 빛이 톱시의 이교도적인 영혼을 관통한 것이다.... “불쌍한 톱시!” 에바가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착한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넌 마침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영원히 천사가 되는 거야. 거기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무런 구분이 없을 거야.” “아, 에바 아가씨, 에바 아가씨!” 톱시가 말했다. “해볼게요. 해볼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245-46)

『톱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여성적 예수”를 상징하는 에바는 “감상문학의 도덕적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이명호 125). 출생 직후부터,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던 흑인 고아인 톱시(Topsy)는 에바의 아버지가 노예 시장에서 ‘구입’한 이후, 에바의 고모인 오펠리아(Ophelia)의 훈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천방지축이었던 톱시를 체벌을 비롯한 강압적 수단으로 교육하려던 오펠리아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반면, 위 장면에서 에바의 감상주의적 접근은 톱시의 “영혼을 관통”하고 자발적인 교화의 의지까지 유도해낸다. 오펠리아 역시 이 장면에 적잖게 감화되며 에바의 죽음 이후, 톱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널 사랑해줄게. 비록 저 사랑스러운 아이[에바]만큼은 못 하겠지만 사랑해줄게. 난 저 아이한테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은 배운 것 같아.... 내가 너를 도와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해줄게”(259). 결국 이때부터 오펠리아는 톱시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는 굳건하게 지켜진다(259).

적잖은 비평가들은 에바의 감상주의적인 언사와 그로 인한 톱시나 오펠리아 같은 주변 인물들 또는 독자들의 도덕적 감화에 주목해 왔다. 제인 탐킨스(Jane Tompkins)는 저 장면을 두고, 당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었던 노예제를 “모성의 신성성”으로 극복하려는 상징적 제스처로 읽어 낸다(134). 감상주의적 문학의 “여성화” 경향에 비판적이었던 앤더글라스(Ann Douglass)조차도 이 대목을 감상주의 소설 중에서 “가장 원

형적이고 원형적으로 만족스러운 장면”으로 꼽으면서, 에바의 죽음이 미국의 대중들에게 끼친 엄청난 영향력을 시사한다(3). 맥 웨슬링(Meg Wesling)은 19세기 영미 문학에서 저 장면만큼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문학적 사건은 없었다고 단언하다. 그는 에바의 죽음 장면이 대중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상주의적 문학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부연한다(72).

하지만 해당 장면을 비롯하여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출판 직후부터, “천국에서의 보상이라는 유예된 정의를 위해 노예제 폭력에 대한 저항을 폐기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Wesling 79). 더글라스는 스토우가 에바의 죽음을 노예제에 대한 항거의 의미로서 제시했지만 작품 속에서 노예제를 바꾸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일갈한다(12). 로라 웨슬러(Laura Wexler)는 스토우의 작품이 인종적 타자를 신체의 규율대신 백인 중산층 가정의 감정적 감화력으로 교화하는 모델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104). 그는 스토우의 감상주의 소설이 인종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폭력”(tender violence)의 수단으로서 구조적 폭력을 영속화하고 정당화하는 퇴행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53). 소설에서 지극히 감상주의적으로 묘사된 에바의 죽음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영향은 폭압적인 노예제에 대한 무장 저항보다는 백인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소극적인 저항을 강조하는 듯하다. 스토우 자신도 노예제 철폐를 위해서는 “기독교적 구원의 개선적인 효과”가 유허 봉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했다(Wesling 79). 또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결말부가 보여주는 인종분리주의적인 입장도 다분히 문제적이다. 에바의 감화를 받은 톰시는 물론, 캐나다로 도망친 조지(George) 역시 아프리카에서에서 선교를 하며 흑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시도한다. 에바가 표상하는 도덕적 감정을 아프리카에 전파하며 흑인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소설의 결말은 당대 미국의 인종분리주의적인 팽창주의와 관련을 맺는다(Kaplan 48). 당시 아이티(Haiti)에서 일어난 인종분류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었던 미국의 인종분리주의자들에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보여주는 사례는 지극히 소망충족적인 시나리오라 할 만하다. 인종분리주의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백인 중산층의 가치를 해외로 전파하는 소설의 플롯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갖고 있는 가정성 담론의 보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Kaplan 48).

하지만 스토우의 입장을 단순히 인종주의로 환원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

내포하는 감상주의의 윤리성과 정치적 전복성을 왜곡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sup>1)</sup> 여기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감상주의가 미국의 대 필리핀 식민 정책에서 전유되는 양상이다. 필리핀-미국 전쟁을 촉발시킨 미군에 의한 한 필리핀 병사의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인 1899년 2월 11일, 미국의 한 시사 잡지는 “우리의 새로운 톱시”(Our New Topsy)라는 한 시사만평을 게재한다. 그림에서는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가 톱시로 묘사되어 있고, 이를 오페리아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영클 샘(Uncle Sam)이 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 우선 이 만평은 19세기 미국 대중에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미군의 침공이 임박한 시기에 미국의 식민당국과 필리핀 저항 세력을 미국의 한 대중 잡지에서 오페리아와 톱시로 표현했다는 것은 스토우의 책이 당대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텍스트였음을 증명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에바의 정서적 영향력에 의해 오페리아와 톱시가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톱시”가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 정책, 즉 “자애로운 동화”(benevolent assimilation) 정책에 의해 미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집단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Wesling 72).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립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필리핀의 독립을 저지했다.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었던 이들은 필리핀인들을 “우리의 작은 갈색 형제들”이라 부르며, 이 인종적 타자들이 미국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를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 즉 “자애로운 동화”를 도와주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라 단언했다. “우리의 새로운 톱시”는 “제국의 인종적 드라마” 지배의 기제로서, 식민지의 타자들을 ‘순치’시키는 “감상주의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것이다(Wesling 72).

식민지의 타자를 애정 어린 훈육이 필요한 어린 아이의 이미지로 환원하

1)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정치적 전복성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Jane Tomkins의 저서 *Sensational Designs: The Cultural Work of American Fiction, 1790-1860*의 다섯 번째 챕터 “Sentimental Power: Uncle Tom’s Cabin and the Politics of Literary History”를 참조할 것.

면서 제국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미국의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sup>2)</sup> 그 중에서도 미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에서 감상주의가 가장 극적이고 전면적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는 바로 필리핀의 경우라 할 것이다. 20세기 초반 필리핀을 병합하면서, 미국은 “자애로운 동화”라는 구호 아래 필리핀의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과 아울러 미국적 가치를 심어 주기 위한 대중교육을 확대시켰다.<sup>3)</sup> 학생들은 영어로 된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나 독립 선언문을 미국인 교사들에게 배웠으며, 매일 아침 미국의 국기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Takaki 57). 미국화 된 대중 교육은 스페인 통치 기간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은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 교사와 학생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자애로운 동화” 혹은 “우리의 작은 갈색 형제들”이라는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는 상호간의 감정적 교감과 애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강압적인 식민 정책, 필리핀 토착 문화의 말살, 혹은 인종간의 갈등은 은폐되고 망각되기도 하였다(Wesling 134).

### Ⅲ. 제국주의적 가정성과 『미국은 내 마음에』

블로산의 『미국은 내 마음에』는 “우리의 새로운 톱시”가 표상하는 미국의 감상주의적 제국주의 기획이 식민지의 타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조망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블로산의 자전적 소설은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서부의 경제적 파탄과 이주 노동자들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재현하

2) 관련 연구로는 Amy Kaplan의 저서 *The Anarchy of Empire: In the Making of U.S. Culture*의 첫 번째 챕터 “Manifest Domesticity”와 Laura Wexler의 *Tender Violence: Domestic Visions in an Age of U.S. Imperialism*을 참조할 것.

3) “자애로운 동화”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가족 로맨스”(family romance)의 언어로 은폐하였고, 미국화된 교육 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Koshy 118). 필리핀의 독립은 아이(필리핀)가 부모(미국)의 보살핌과 지도아래 성장하고 자립의 역량을 키울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Koshy 117).

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초반부는 1920년대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데 할애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미국으로의 대량 이주가 발생하기 이전인 1920년대 중반 필리핀의 사정을 다룬다. 이 시기 필리핀은 미국 식민 경제의 한 축으로서 천연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산업 기지의 역할을 했다. 미국적 가치와 이상은 신봉하고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여겨졌으며, 적잖은 청년들이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꿨다. 미국식 영어를 익히는 것이 “낙후된” 필리핀 현지인들이 “근대적”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졌다(Wesling 17). 이처럼 미국식 교육을 받고 영어를 익힌 필리핀인들은 식민 경제를 뒷받침하는 유용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식되었다(San Juan Jr. 31-2).

소설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카를로스(Carlos)가 미군의 일원으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고 고향땅으로 돌아오는 형 레온(Leon)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4). 그의 또 다른 형인 루시아노(Luciano) 역시 미 육군으로 복무하고 있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10). 형제들이 미군으로 복무하는 까닭으로 같이 살수 없는 정경을 작품 초반부터 제시함으로써, 볼로산은 20년대 미국 대외정책이 필리핀인들의 삶에 미친 강력한 영향력을 시사한다. 또한 당대 도입된 미국적 교육 체계가 필리핀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변모된 식민지의 모습도 묘사한다. “미국의 무상 교육이 확산되었을 때, 아들을 가진 모든 가족은 재산을 모두 끌어 모아 아들들을 학교에 보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 마카리오(Macario)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였다”(14). 공립학교에서 영어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익힌 필리핀의 젊은 세대들은 “미국적 이상과 삶의 방식”을 동경하게 된다(5).

『미국은 내 마음에』에서 1920년대 필리핀에서 감상주의의 식민주의적인 기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는 미국인 여성 메리 스트랜든(Mary Strandon)이다. 그의 아버지는 필리핀-미국 전쟁에서 사망했는데(68), 이 부녀의 이야기는 젠더화된 미국 제국주의 담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에이미 카플란(Amy Kaplan)에 따르면, 미국의 제국주의 서사에서 남성들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역할을, 여성들은 “가정의 공간”이나 감정의 영역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41). 다시 말해, 제국의 남성들이 정치·경제의 영역에서

강압적으로 피식민지를 수탈했다면, 제국의 여성들은 피식민지들의 내면을 움직여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를 요구받았던 것이다. 카를로스 와 스트랜든의 에피소드는 이 같은 젠더화된 식민지 기획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도서관 사서이자 화가였던 그는 카를로스를 잡역부로 고용한다. 어느 날, 청결하지 못한 얼굴을 한 카를로스를 발견하자 스트랜든은 비누를 건네면서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고 종용한다. 불결한 얼굴 상태를 지적받는데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끼던 이 필리핀 소년은 군말 없이 비누로 얼굴을 씻는다(68). 이 대목에서 잠시 19세기 영국의 비누 광고의 역사를 다룬 앤 맥클린탁(Anne McClintock)의 논의를 언급하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듯싶다. 맥클린탁에 따르면 비누는 처음부터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212). 비누광고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위해 수행했던 역할을 조명하면서, 그는 관련광고에서 비누가 “문명화 사명”의 도구로서 묘사되었음을 지적한다(214). 1899년 피어스 비누회사(Pears)는 마닐라 만(Manila Bay)에서의 스페인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미해군 제독 조지 듀이(George Dewey)의 이미지가 나오는 광고를 『맥클루어 매거진』(*McClure's Magazine*)에 게재한다. 듀이가 그의 함대에서 자신의 손을 꼼꼼하게 씻는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 바로 아래에는 “빛나는 백인 남성의 짐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청결함의 미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나온다(McClintock 32). 피어스의 광고는 미국의 대 필리핀 정책에서 “가정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McClintock 32). 맥클린탁의 논의를 빌어 설명하자면, 카를로스는 비누를 생애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자애로운 동화”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 셈이다. 인종화된(racialized) 가정성을 익히는 것이 식민지 타자들의 동화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스트랜든이 자신의 먼지 묻은 얼굴을 나무라자 카를로스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인종적 열등감으로 전이되는 이 장면은 가정성이 식민지와 식민도국 사이의 위계를 확립하는 기제로 복무했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킨다. 19세기말 이후, 미국의 팽창주의적 담론은 미국의 백인 중산층 가정을 미국적 가치와 문화를 함축하는 문명의 표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지 못한 인종적 타자들은 훈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었다(Wexler 67). 카를로스의 에피



소드는 이 같은 담론을 내면화 한 식민지 타자의 고충을 보여준다.

인종화된 가정성에 대한 필리핀 젊은 세대들의 집착과 열등감은 볼로산 작품 전반에서 드러난다. 카를로스의 네 명의 형들 중 한명이자 집안의 희망으로서 “미국적 방식으로 교육 받은” 마카리오(Macario)는 카를로스를 고향땅에서 보자마자 동생의 머리를 “신사”같이 다듬고 싶어 한다(21). 카를로스는 자신의 정리되지 않은 머리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정을 갖는다(20). 긴 머리를 하고 맨발로 등교한 공립학교에서도 그는 급우들로부터 놀림을 받는다(48). 집안의 농사일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친구와 같이 어떤 학교에서 청강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험클어진 머리와 맨발로 수업을 듣게 된다. 그때도 역시 다른 학생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느끼게 된다. 카를로스 또한 자기 집 주변의 소녀들이 “별거벗은 몸”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멸의 감정을 느낀다(77). 인종간의 위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시아의 식민지에 이식된 미국 중산층 가정의 행동 규범이 식민지 내부에서 계층간의 분열을 야기하는 순간을 바로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랜든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미국 문학에 관한 것이다. 웨슬링에 따르면 필리핀의 식민화 과정에서 미국 문학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적 가치와 문화의 우월성을 전파할 만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문학은 식민지 타자들에게 그 같은 이념들을 전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노예 해방 이전에도 문학은 중산층 계급의 감상주의를 전파하는 유용한 기제였는바, 19세기 이후 미국의 팽창주의 과정에서 그것은 미국적 가치와 우월성을 식민지에 이식하는 중요한 통로로 인식된다(Wesling 32). 필리핀에는 “에바가 없었지만 도서관, 학교, 책이 있었다”라는 웨슬링의 지적은 대 필리핀 식민정책에서 미국문학이 맡아야 했던 역할을 간명하게 함축한다(97). 『미국은 내 마음에』서 카를로스는 우연찮게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에 대해 듣게 된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링컨의 스토리에 매력을 느낀 그는 스트랜든에게 링컨에 대해 묻기 시작하고, 이 미국인 여성은 링컨이 흑인을 위해 싸웠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했다”라는 말을 해준다(70). 스트랜든과의 대화 이후, 카를로스의 지적인 호기심은 더욱 왕성하게 된다. 스트랜든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도서관에서 영

어로 된 책들을 가져다가 카를로스에게 지속적으로 빌려준다(70). 자연스럽 게 카를로스는 자유와 평등의 공간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념을 키워가면서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꾼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 16살의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미국 본토로 가는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 그 선상에서도 혼육의 기제로서의 ‘가정성’은 부각된다. “원주민 주체에서 이주민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기에”(Koshy 103), 카를로스는 미국에서 무수하게 직면하게 될 차별의 전조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으로 가는 긴 여정 속에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렴한 3등 선실에서 지내게 된다. 어느 날 햇별을 찍기 위해 동료 필리핀 이주민들과 갑판에서 탈의한 채 누워있을 때 그는 한 백인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듣는다. 그 여성은 “저 원숭이들 자기들 고향땅으로 왜 돌려보내지 않지?”라며 짜증과 경멸이 섞인 말을 쏟아낸다(99). 훗날 이 여성의 목소리를 회고하면서 카를로스는 “후에 미국에서 나는 저 소녀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토로한다(99). 앞서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에서 가정성이 식민모국과 식민지 타자들의 위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불로산의 텍스트는 미국 백인 중산층의 미덕이라 간주 되던 청결한 몸이나 단정한 옷차림과 거리가 먼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행색이 그들의 열등한 지위를 드러내는 기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IV. 감상주의의 정치적 전복성

『미국은 내 마음에』의 중후반부는 카를로스가 대공황기 미국 서부에 도착해서 이주민 노동자로서 겪었던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지방의 농업 종사자들은 1924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아시아계 노동력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렴한 노동력인 필리핀의 젊은 남성들을 주목한다. 1930년대에 약 5만 6천여 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미국 서부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중 94퍼센트는 남성이었고, 84퍼센트는 30세 이하였다(España-Maram 19). 미국의 고용인들은 농작물의 수확 시기에 따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정착의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을 선호했다(Chuh 52; España-Maram 19). 불로산의 화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1930년, 16살의 나이에 미국에 도착한다. 민주주의나 공평한 기회와 같은 미국적 이상에 심취한 채, 꿈에 그리던 미국 본토를 밟았던 카를로스는 흑독한 인종차별의 희생자가 된다.

도착 이후 카를로스는 주로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동료 필리핀 노동자들과 함께 극심한 박해와 차별에 시달리게 된다. 미국적 이상을 내면화하고 영어도 비교적 능숙했던 필리핀 남성들은 백인 여성들과의 이성애적 관계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 “금발여성을 쫓는 이”(blonde chaser)로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실제 택시 댄스 홀(taxi-dance hall)에서 대공황기 경제적 궁핍을 극복하기 위해 댄서로 일하던 백인 여성들과 춤을 추거나 교제를 하기도 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필리핀 남성들은 고향에서 이미 미국의 문화를 접하고 영어를 익힌 상황에서, 미혼 남성만을 선호했던 캘리포니아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의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다른 아시아계 남성과는 달리 백인 여성과의 교제에 적극적이며 동시에 동성사회적(homosocial) 공동체를 형성했던 필리핀 이주 남성들은 당대 모범적 가정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로 인식되었다. 이 같은 미국 사회의 대중적 인식으로 인해 필리핀 남성들은 백인 폭도들에 의해 린칭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코리사 미첼(Koritha Mitchell)에 따르면 20세기 초반 흑인 남성들에 가해지던 린칭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그들이 “안정적인 가정성”과 거리가 먼 존재들이라는 편견이었다(25). 필리핀 이주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가해진 물리적 폭력은 그들도 가정성의 부재라는 이유로 인종주의적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상기한다.

불로산의 텍스트에서 흥미로운 것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 척박한 경제적 풍토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인종적 폭력의 가장 큰 폐해를 정서나 감정의 파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간의 유대를 파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Santa Ana 110). 미국에 도착 직후, 카를로스는 동료 필리핀 남성들과 함께 알래스카에 있는 생선 통조림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이들에게 통조림 공장을 소개해 준 이 역시 같은 필리핀 출신의 남성이었었는데, 그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 그가 동포 필리

핀 노동자들에게 건네는 첫 말은 다음과 같다. “... 이 악마 녀석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야”(101). 그 사나운 음성을 떠올리며 카를로스는 “그것이 미국에서의 나의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회상한다(101). 그의 말대로 미국에서의 카를로스의 생활은 동료 필리핀 노동자들간의 반목과 싸움(intra-ethnic violence)의 연속으로 점철된다. 댄스홀이나 도박장 등지에서 필리핀 남성들은 서로를 속이고 가격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한다. 종족간의 폭력에 무디어진 주인공은 “내 동포들이 서로를 향해 잔인무도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놀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109). 그리고 이 같은 폭력의 일상화로 인해 “고통”에 무디어지고 타인을 다시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다(109). 그의 동료 중 한명은 대공황기의 여파 속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누군가 오늘 죽었으면 좋겠네”라고 태연히 말하고 주위의 친구들 누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132). 카를로스에게 이 같은 공감능력과 정서의 파괴야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 “나는 가난과 배고픔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자포자기식의 냉소는 나를 정말 힘들게 했다”(133). 1930년대 백인 노동자 계층이 필리핀 이주민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계급적 연대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이 지점에서 카를로스의 동료들도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데 실패한다. 주인공이 개탄한 “자포자기식의 냉소”는 급기야 서로를 향한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신음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극심한 소외를 경험하던 카를로스에게 다시금 미국적 이상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존재는 노동 계급의 백인 여성들이다. 대공황기 필리핀 남성들에게 경제적 파탄의 책임을 묻던 일련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과는 달리, 『미국은 내 마음에』에 등장하는 노동계층의 백인 여성들은 카를로스와 계급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인종과 젠더를 가로지르는 이 독특한 제휴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미국의 대 필리핀 식민정책에 활용되었던 감상주의적 기획이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에 의해 전유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에 도착 직후부터 캘리포니아, 시애틀, 알래스카를 떠돌며 극심한 인종 차별적인 노동착취에 시달리던 카를로스는 노동운동에 전력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파업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백인 자경단에 의해 린칭을 당하고 경찰에 쫓기다가 우연히 “매리안”(Marian)이라는 한 백인 여성과 교

류하게 된다. 성매매 노동자였던 매리안은 미국에서 카를로스가 감내해야 했던 폭력과 착취의 경험에 깊은 동정과 공감을 표시하고 그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 매리안은 카를로스를 극진하게 보살피고, 대학에 진학하라며 돈까지 건넨다(215). 그리고 둘은 일정 기간 매리안의 소득으로 같이 살면서 나름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매리안은 질병을 앓게 되어 죽어 가는데, 그의 죽음을 소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가 말하지 않던가요? 언덕위에 있는 나무들을 좀 봐요. 이 땅이 낙원 같지 않나요!”...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올바르게 깨끗한 모든 것을 사랑해주세요. 당신 안에 내면의 빛처럼 반짝이는 것이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빛나게 하겠다고 내게 약속해줘요.” (217)

이 장면은 에바가 톱시에게 죽기 전에 남기던 유언을 거의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sup>4)</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글라스는 에바의 감상주의가 노예제의 실체를 직시하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매리안의 유언이 가혹한 인종적 폭력에 시달리던 1930년대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저항의 정당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은 내 마음에』에서 카를로스와 매리안이 맺는 특수한 관계가 함축하는 감상주의의 진보적 정치성이다. 우선 매리안은 성 노동자 여성으로서 19세기 백인 중산층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감정의 감화력의 계급적 성격을 교란시킨다. 실제로 카를로스는

4) 물론 볼로산은 자신의 소설에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톱시”라는 만평이 보여주듯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미국의 대중에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단연코 가장 잘 알려진 책이었다. 그리고 미국 문학, 특히 감상주의 소설이 미국의 필리핀 식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필리핀의 어린 학생들이 미국 문학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미국적 가치를 내면화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볼로산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닐 것이다. 미국 문학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기획에 활용된 양상은 Wesling 저서의 두 번째 챕터 “Empire’s Proxy: Literary Study as Benevolent Discipline”을 참조할 것.

매리안과의 만남 직후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후 지속적인 인종적 탄압 속에서 황폐화되던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이 대목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매리안의 헌신과 사랑에 의해 카를로스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이상과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것이 당대 미국의 인종분리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백인 폭도들에 의해 가혹한 물리적 폭력을 당한 후, 매리안에게 간호와 위로를 받은 카를로스는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나는 거의 올 뻔했다. 도대체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전에 나는 백인 남성들에 의해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백인, 한 백인 여자는 나에게 음식과 머물 곳을 주고 있어. ... 나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다”(209-210). 앨리스(Alice)란 백인 여성과의 교류도 주목할 만하다. 유년시절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는 카를로스과 이산과 이주의 아픔을 공유한다. 앨리스는 카를로스에게 깊은 공감을 보인다. 이에 대해 카를로스는 앨리스에게 인종과 젠더를 뛰어넘는 연대의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짓누르던 공포에 대해 묘사했다. 동일한 힘에 의해 공포를 느껴야 했던 그녀와 나의 인생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그것이 두 나라에서, 두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이다”(230). 앨리스는 카를로스에게 “뛰어난 프롤레타리아 단편 소설들”을 주면서 그의 정치적 각성을 촉발하고(228), 자신 역시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존엄”을 잃지 않는다(231).

백인 자경단들의 린칭 이후 필리핀을 떠나 올 때 가졌었던 미국의 민주주의적 이상에 대한 동경이 좌절되는 것을 느꼈던 카를로스는 이들 백인 여성들과의 교류 이후,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에바의 유언 이후, 틱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카를로스는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인종주의적 노동 착취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에 더욱 힘을 쏟는다. 그러면서 작품 말미에서 “누구도 미국에 대한 나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었다”라고 토로한다(326).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는 자신과 같이 인종적 타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매리안 같은 이들의 “희생들”로부터 잉태되었다고 부연한다(326).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던 인종분리적인 서사와는 달리, 백인 여성들의 감정적 감화는 인종 통합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스토우의 서사가 인종적 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면(이명호 130), 볼로산의 텍스트는 대공황기 인

종과 젠더를 가로지르는 계급적 연대에 바탕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은 내 마음에』라는 책 제목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자신들의 노동의 자취가 새겨진 미국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이거나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백인 노동 계층의 여성들과의 만남을 전후로 카를로스가 보여주는 행적에서 우리는 감상주의적 요소가 미국적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당대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갈망을 더욱 촉진하고 있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결국 불로산의 소설은 스투우의 원전의 감상주의가 내포하던 인종분리주의적인 가치를 인종 통합의 관점에서 다시 쓰고 있는 셈이다.

## ■ 참고문헌

- 이명호, 「감성적 개인주의와 가정의 정치학—해리엇 비처 스토우의 『영클 톰의 오두막집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14. 1, 2009.
- Bulosan, Carlos. *America Is in the Heart: A Personal History*. Seattle: U of Washington P, 1973.
- Chuh, Kandice. *Imagine Otherwise: On Asian American Critique*. Durham: Duke UP, 2003.
- Douglass, Ann. *The Feminization of American Culture*. New York: Knopf, 1977.
- España-Maram, Linda. *Creating Masculinity in Los Angeles's Little Manila: Working-Class Filipinos and Popular Culture, 1920s—1950*. New York: Columbia UP, 2006. Print.
- Kaplan, Amy. *The Anarchy of Empire: In the Making of U.S. Culture*. Cambridge: Harvard UP, 2002.
- Koshy, Susan. *Sexual Naturalization: Asian Americans and Miscegenation*. Stanford: Stanford UP, 2004.
- McClintock, Anne. *Imperial Leather: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lonial Contest*. New York: Routledge, 1995.
- Mitchell, Koritha. *Living with Lynching: African American Lynching Plays, Performance, and Citizenship, 1890-1930*. Urbana: U of Illinois P, 2012.
- San Juan, Epifanio, Jr. *The Philippine Temptation: Dialectics of Philippines—U.S. Literary Relations*. Philadelphia: Temple UP, 1996.
- Santa Ana, Jeffrey. *Racial Feelings: Asian American in a Capitalist Culture of Emotion*. Philadelphia: Temple UP, 2015.
- Stowe, Harriet Beecher. *Uncle Tom's Cabi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Contexts, Criticism*. Ed. Elizabeth Ammons. New York: W. W. Norton, 1994.
- Takaki, Ronald T.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1989. Reprint, New York: Penguin, 1990.

Tomkins, Jane. *Sensational Designs: The Cultural Work of American Fiction, 1790-1860*. New York: Oxford UP, 1985.

Wesling, Meg. *Empire's Proxy: American Literature and U.S. Imperialism in the Philippines*. New York: New York UP, 2011.

Wexler, Laura. *Tender Violence: Domestic Visions in an Age of U.S. Imperialism*.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2000.

❖ ABSTRACT

## American Imperialism and Sentimentalism

Ko, Kangyl

This essay explores the way in which American imperial policy and its counter discourse appropriate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sentimental literature. I consider Harriet Beecher Stowe's *Uncle Tom's Cabin* and its reception in the colonial context of the Philippines. In doing so, my essay critiques imperialistic impulses embedded in the politics of racialized domesticity advanced by Stowe's text. This essay then queries Carols Bulosan's semi-autobiographical novel, *America Is in the Heart*, in order to trace the trajectory of the discourse of American imperial domesticity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Looking closely at Bulosan's portrayal of the Filipino colonial subject's negotiation with the discourse of "benevolent assimilation," I read his novel as a cultural space in which the imperative of the racialized domesticity is endorsed or questioned. This essay concludes that *America Is in the Heart* offers a serious critique of racist and classed assumption of the imperial domesticity.

Key Words : Stowe, *Uncle Tom's Cabin*, American Imperialism, Bulosan, *America Is in the Heart*, Sentimentalism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